주일예배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오후(4부) 5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8월 15일 (제1110 호)

주일예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4부(오후) 5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븡우컬럼

존재의 이유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간호 총 책임자인 대대장으로 참전했던 미(美) 육군 중령 정순애, 그녀의 간증이다.

그녀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번개 치는 소리가 들렸다. "첫사랑을 잃지 마라. 첫사랑을 잃지 마라." 이 음성을 듣고 그녀는 전쟁터라는 이유로 등한시했던 교회를 중무장하고 30분을 걸어 아침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갔다. 그랬더니 포탄이 머리 위로 날아오고, 바로 옆에 떨어져도 그녀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목사님, 정말 전쟁은 무섭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녀는 전역 후, 6개월을 기도했다. 그리고 한국으로 날아와 자기를 선교사로 임명해 달라고 했다. 남은 생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노라고. 왜? 그 끔찍했던 전쟁터보다 더 끔찍한 곳이 지옥임을 알기에.

그녀는 다시 말했다. "목사님, 제가 지옥을 봤어요. 영이 빠져나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3개 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1층에는 주의 종들, 교회에서 일 좀 했다는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교회 성물을 파괴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3층에는 안 믿는 자들이 엉켜서 서로 물고 피를 빨고, 살을 깎아내는 고통 속에서 괴성을 지르고…. 전쟁도 비참했는데 지옥은 전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곳입니다. 그걸 봤는데 그곳에 가는 걸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를 선교사로 임명해주시면 평생을 천국과 지옥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그의 간증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참 귀한 결정을 했구나. 네게 예수중심교단 선교사 자격증을 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라."

나도 잠시 지옥을 본 적이 있다. 사람을 기름에 튀기고, 불이 지글지글 타는 곳에 굴리고…. 도저히 눈 뜨고는 못 볼 광경을 보았다. 지옥을 단 1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을 자가 누가 있으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결정된다. 선택은 오로지 당신의 몫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배우고 익혀서 내 것을 만들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은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기성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깨닫게 되면 정말 신세계가 열린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일성수 잘하고, 봉사도 하고, 성도간의 교제도 나름 잘하며 십일조, 감사헌금 등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기고 지내오다가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 백이면 백 두 갈래로 갈린다. 처음부터 강력한 거부감으로 외면하거나 눈이 번쩍 뜨이는 영적 신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우루과이의 라구나 선교사는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의 메시지는 누구에겐 약이지만 누구에겐 독약이다."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의 영적 생활에 엄청난 보약이 되지만, 잘못 받아들이면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목사님의 메시지와 목사님의 사역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폄훼하다가 성령훼방죄를 짓고 영원히 사함 없는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12:31~32).

목사님 메시지의 차별성은 영적 권세, 곧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복음의 힘이다. 오랜 세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지 나사로처럼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 받으며 가난을, 병을 정상으로 알고,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인내하다가 죽음 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안식을 누린다는 소망으로 사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기고 살아왔다. 더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각종 금지요건들을 지켜야하는 멍에처럼 달고 사니 실제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교회생활 따로, 실생활 따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많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단지 죽음 후의 영적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징계 받고, 채찍 맞고, 부요한 자로서 가난한 게 된 것,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자는 가난과 병과 고통에서 해방 받고 궁극적인 구원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천사를 부리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여 이루어내고, 나아가 천국에서 왕권과 상급까지 받는 가히 혁신적인 복음에 있다. 더 이상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나약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의 비밀 중의 비밀은 성령충만이다. 예수께서 부활승천 하신 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뿐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하는 대역사의 기폭제였다. 그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누누이 강조하신다. "네 것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하냐?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미 나의 것이 되었건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는데, 왜 여전히 죄에 종노릇하는 어리석고 피폐한 삶을 사는가? 반복, 반복 배우고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만물을 명령하고, 더러운 귀신과 악한 마귀를 내쫓아라. 그리하면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역사의 변두리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9:43~50)

살아남으려면 구조조정 하라

'지혜란 버릴 것을 아는 기술이다.'

맞습니다. 멀리 가려면 짐이 가벼워야 하고, 높이 오르려면 역시 짐이 단출해야 합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배낭에 짐을 바리바리 싸서 가면 짐에 치여서 절대 정상까지 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공하고 싶으냐? 천국 가고 싶으냐? 그러면 불필요한 것들 좀 버려라. 제발 인생의 구조조정 좀 해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요?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막9:43~47). 영적인 것이나 혼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 성장하는데 저해가 되는 요소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라, 그래야 멀리 갈 수 있고, 높이 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변화가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라

구조조정(構造調整)이란 얽을 구(構), 지을 조(造), 고를 조(調), 가지런할 정(整)으로,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개혁 작업을 뜻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큰댁이 소사에서 복숭아 농사를 지으셨는데, 학창시절에 자주 그곳에 놀러가곤 했습니다. 어르신이 일을 하시니까 저도 조금이나마 돕고자 따라다녔는데, 그분은 과수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나뭇가지를 뚝뚝 잘라버리기도 하고, 잔 복숭아를 똑똑 따버리곤 하셨습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게 어렵던 시절인지라 저는 아까운 마음에 그걸 왜 따버리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잘라내야 복숭아가 더 커지고 맛도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구조조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잔 열매를 전지해서 나머지 열매가 더 실하게 하는 것처럼,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사업을 잘라냄으로 기업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다섯 달란트(열 므나), 두 달란트(다섯 므나), 한 달란트(한 므나)를 주고 갔습니다. 몇 년 후 주인이 돌아와 회계를 했더니, 다들 갑절의 이윤을 남겼는데, 한 달란트(한 므나) 받은 종은 전혀 이익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기업의 계열사 중에 몇몇 기업들은 100% 이윤을 창출한 반면, 어느 기업은 이윤을 전혀 남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윤을 남기지 못한 그를 퇴출시키고(마25:30), 이윤을 많이 남긴 기업에 더욱 많이 투자합니다.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마25:28, 눅19:24). 누가복음 19장 26절에는 구조조정에 대해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지금 살아남은 기업은 18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미련을 갖고 처분하지 못하다 결국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대마불사를 호언하던 어느 대기업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기업은 재빠르게 몸집을 줄이고 철저한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기업뿐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나 교회 또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단계적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하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도 불가능하고 또한 전달과정에서 의도가 왜곡되어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복잡한 과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성공한 대표적 기업으로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성공의 주역은 아이아 코카입니다. 아이아 코카가 크라이슬러에 갔을 때는 그야말로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방만한 경영으로 무너져가고 있던 크라이슬러에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함을 깨닫고 과감한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먼저 35명이나 되는 부사장 중 33명을 퇴출시키고, 만 오천 명가량의 정규직을 해고했으며 정신적 구조조정까지 단행해서 취임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부채를 일거에 상환하고 순익을 내는 신화를 일궈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아이아 코카는 그간 삭감했던 임금도 다시 본래의 수준으로 올렸고, 해고했던 직원들도 다시 복귀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아 코카는 바로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의 구조조정을 그대로 단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라'는 말씀을 읽고는 '너무하다', '냉정하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 아이아 코카처럼 기업이 이익을 낼 때 그들을 다시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멸을 면하고 상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14:26)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걸림돌이 되면, 처자나 형제가 방해하면 그것에서도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냉정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에 잘 되어 부모도 구원하고, 형제도 구원할 수 있기에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샘플 아닙니까? 신앙 때문에 가족을 떠났었지만, 결국 제가 성공하니까 가족들을 다 구원했을 뿐 아니라 많은 주의 종까지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아 코카는 기업의 구조조정만 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구조조정도 단행했습니다. 게으르고 책임감도 없으면서 월급만 챙겨가는 간부들을 다 잘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이 변해야 삶이 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불평 불만, 나태함, 고착된 사고방식, 대충하는 습관, 교만, 위선, 거짓 등 성공을 가로막는 것들, 성공의 저해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인식의 변화 없이 밝은 내일은 없다

주부님들도 구조조정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지 마세요. 반찬 이것저것 만드느라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맛난 거 한두 가지로 줄이세요. 옷장이 복잡하지요? 옷장 하나 더 사실 생각 말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세요.

제 지인은 애들을 다 출가시키고는 펜트하우스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괜히 집만 크면 휑하고, 관리비만 많이 나오고, 또 청소하기 힘들다고요. 그것도 구조조정입니다. 부부 둘이 사는데 작은 집이면 족합니다. 그 집을 팔고, 남는 돈으로 이윤이 나는 곳에 투자하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우리는 신앙에 저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손이 죄를 짓거든, 발이 자꾸 범죄의 소굴로 끌고 가거든, 눈이 못된 것만 쳐다보거든 과감히 손을, 발을, 눈을 제거해버려야 저 높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세상의 명예가 집사나 권사나 장로 직분보다 귀하게 여겨진다면 그것 역시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사울처럼, 삼손처럼, 부자청년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바울이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과의 견고한 진임을 깨닫고 그것을 과감히 버렸기 때문입니다(빌3:8). 누군가 그랬습니다. '열두 가지 재주 가진 놈이 저녁거리 간 데 없다'고요. 열두 가지 재주를 구조조정 했어야 하는데 안 해서 그런 겁니다. 한 가지 재주를 키워 그 분야에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요즘 아이들 학원 몇 개씩 다니는데 그것보다는 잘하는 한 가지에 집중시켜야 효과가 날 것입니다.

모세가 조직개편을 했듯이,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를 정리했듯이, 우리 하나님이 지성소의 절차를 간편화했듯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군사개편을 요구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면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내 기업이나 내 가정, 내 교회, 내 국가와 내 지자체의 저해요소, 내 영·혼·육의 저해요소를 잘라낼 때 아름다운 미래가 꽃다발을 안고 여러분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마7:19).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지식과 경험, 재능도 필요!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양호한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장에 뛰어들면서 단기간에 쉽게 이익을 올리려 하지만, 실전경험을 통해 쌓은 지식이야말로 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손실을 보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지식이란 정보와 그것을 시장의 편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제럴드 로브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지식 외에 천부적인 재능이나 육감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많은 공부를 하고 다년간의 경험을 쌓았다 해도 주식시장이 자신에게 정말로 맞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분명한 법칙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답은 반드시 있게 마련인 과목이 있는가 하면 주식의 가치에는 이런 식의 정답이 없습니다. 시장가치는 재무제표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될 뿐 오히려 희망과 공포라는 인간 본성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지요. 심지어 특정 시점의 주가가 그 이후의 시장가치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가가 낮으면 주식보유자들이 겁을 먹고 팔거나 매수하려던 투자자들이 매수를 미루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투자자들은 싸다는 생각으로 사기도 합니다. 주가가 높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져 그 이후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로브는 주식시장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 규칙이 매일 주가가 공표되고, 언제든 경매시장을 통해 매매할 수 있는 주식만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거래가 활발하며, 거래자가 많은 종목일수록 특정 시점의 주가가 공정한 가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벌고 있는지 잃고 있는지도 꼭 알아야 하며 과감히 이익을 실현하거나 손절매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는 투자세계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재빨리 투자자금을 옮길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뜻이지요.

사실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점 외에도,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여유자금의 가치를 보전하고 늘릴 수 있는 최고의 투자대상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지겠지요.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렸는데 이는 주식투자도 동일합니다. 로브는 열심히 공부하고 부단히 노력하면 진정한 지식이 부를 가져다주고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곳으로 주식시장만한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세상에서 내 삶의 이익을 남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세상의 지식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보를 가진 자가 앞서가는 것처럼 하늘나라 정보를 보유한 자가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쌓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늘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 프롬인터넷 ::

재치가 있어야

미국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배우가 되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할리우드로 갔습니다. 하지만 영화 관계자들은 그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퇴짜를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 좋게 한 영화사에서 진행하는 배우 선발 면접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의 순번이 됐을 땐 면접관들이 오랜 면접 때문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한 면접관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자료는 이미 다 살펴봤으니 소개할 필요는 없고,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대답해보세요."

"저의 특기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보여주세요. 빠르고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면접관은 대충 대답하며 빨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곧바로 시험장 문을 열고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면접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제 그만 대기하고 집에 가서 식사하세요. 면접관들이 나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그의 행동에 그만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강력한 인상을 남기며 영화사에 채용되었습니다.

이날 재치 있는 모습을 보여준 학생은 훗날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미국 코미디의 황제'라는 별칭을 얻은 희극배우 '밥 호프'입니다.

재치 있는 말, 곧 유머는 여름날의 얼음냉수 같고, 겨울날 따뜻한 한 잔의 커피 같은 것으로 세상을 환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잠15:23).

예수중심편집실

:: 간증 ::

목사님의 기도 받고 순산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도 저는 늘 주일마다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늘 "임신케 하신 하나님이 순산케 하실 것이다."라고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셨습니다. 대체로 첫 출산이 어렵다고 하던데 저는 목사님의 기도로 순산했습니다.

이번 둘째 아이가 생기고 나서도 교회를 갈 때마다 예배 후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께서는 제 배에 손을 얹고 아이를 위해 축복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막달에 코로나가 심해져서 교회를 못 가게 된다는 소리에 목사님께서 계신 방송실에 가서 기도를 받았었습니다. 그때도 제게 순산의 복과 제가 아이를 위해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목사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난 7월 18일 새벽에 갑자기 진통이 와서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그냥 단순한 진통이 아니라 이미 양수도 터진 상태라면서 양수가 터졌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했습니다. 양수가 터지면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물처럼 흐르지 않아서 양수인지 몰랐다고 간호사 선생님께 답을 하고는, 급하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마침 주일이어서 목사님과 통화는 되지 않아 송초현 전도사님께 전화 부탁을 드리고 끊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오셔서 초음파검사를 하면서 양수가 거의 다 나와 아이가 힘들어하면 제왕절개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분만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뱃속에서 잘 버텨주고 있었고 진통의 간격도 계속 짧아지고 있었기에 감사했습니다. 11시 52분, 목사님께서 이제 2부 예배가 끝났다고 하시면서 예배 드렸냐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진통이 와서 병원에 와있다고 하니, 목사님께서 제게 '이 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순산하는 복을 주시고, 이 종이 이들을 위해 축복했던 그 축복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세세히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기도해주셨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교회 기획실에서 문서 편집디자인 일을 했었는데, 이를 기억해달라고 목사님이 기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시고 '오늘 예배 꼭 봐라' 하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목사님과 통화한 지 10분도 안 돼서 무통 마취를 하고 있던 제게 진통이 느껴졌고, 간호사 선생님들을 불렀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직 자궁이 5cm만 열렸다고 하시더니, 다시 검사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궁이 다 열렸다며 분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1시간도 채 안 되어 저희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너무 쉽게 아이를 낳은 겁니다.

너무 기뻐서 목사님께 아이 사진을 찍어 보내드리며 기도해주셔서 단시간에 순산했다고 감사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목사님이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주의 종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경험을 어떤 문화적인 지식 앞에 팔아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두 번의 경험이 제 평생 제 신앙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베풀어주신 목사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제게 간증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혜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에덴으로 귀환 ::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라

화장품 제조사는 종종 클라이언트의 실사를 받습니다.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나 정기적으로 제조사 평가를 받아야 할 때, 거래처의 품질관리 담당자가 찾아와 실사를 하는데, 제조사가 화장품 법에서 정해진 가이드대로 운영이 되는지, 제조소의 시설과 위생, 제품의 품질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담당자의 평가에 따라 해당 화장품 제조사와 거래를 시작할 것인가,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었던 업체라면 계속 제품 제조를 위탁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죠.

최근 우리 회사는 업계에서 인지도도 높고 규모도 꽤 큰 업체로부터 여러 종류의 제품 발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품 개발을 우리에게만 의뢰한 것이 아니라 타 업체와 경쟁이 붙은 상황이라 최대한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하려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 대응했더니 결국 그 모든 제품 생산을 우리 회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병이 생겼습니다. 발주 바로 직전에 거래처의 품질관리 최고 관리자가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 관리자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경력직 팀장으로 까다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거래처 사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심지어 한 업체는 실사 후에 진행하기로 했던 모든 발주가 다 취소되었습니다.

거래처의 각 담당자들에게 품질관리팀장에 대한 기호와 성향을 물어보았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정보를 얻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3일에 걸쳐 공장 구석구석을 깔끔하게 대청소를 한 후 바닥도 광이 나도록 폴리싱과 왁스칠을 했고, 실사 때 필요한 서류들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실사 당일엔 거래처 담당자들이 일러준 팁을 십분 활용했고, 우리 직원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준비해서 팀장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자신감 있게 어필했습니다. 두근거리는 실사를 마치고 품질관리 팀장은 복귀했고, 1~2시간 후에 거래처 담당자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담당 팀장이 이렇게까지 극찬한 업체는 드물다'며, 회사 내부 공지에 '에데니끄'는 규모는 작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수한 협력업체라고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 대접했더니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이 참 깊었습니다. 거래처 팀장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그를 왕처럼 대접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했는가? 코로나 문제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총회장 목사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인격과 감정이 있으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드려야지, 예배시간에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처럼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는 조아리고 굽실거리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께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렸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신랑이 아기를 돌보는데 휴대폰을 하면서 돌보자 아기가 계속 징징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배서방, 이삭이도 배서방이 최선을 다해 자기를 돌보는지 딴 일을 하면서 돌보는지 다 알아." 말씀하시면서 왜 아기가 유독 할아버지를 따르고 좋아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저희 아버지는 아기를 돌봐주실 때 아기에게만 집중해서 신나게 놀아주시고 오롯이 아기에게만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러니 할아버지를 따를 수밖에요. 그러면서 온 가족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갓난아기도 부모가 자신을 최선을 다해 돌봐주는지,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지 다 안다. 어린 이삭이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지,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지 모르시겠니? 기도 시간에, 예배시간에 너희들 모두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다른 곳에 두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해라." 정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최근 시험에 빠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일 기도를 반복하고 기도 중심으로 사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캄캄한 밤이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에는 이렇게까지 기도한 적도 없고, 기도 중심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세상일이 조금 더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모든 일정을 정하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저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제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고, 몸은 기도 자리에 있고 예배시간에 있어도 마음은 세상일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거래처 팀장의 마음을 얻어 보겠다고 몇 날을 혈안이 되어 실사를 준비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린 아기조차도 자기를 최선을 다해 돌봐주는 사람을 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모양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과연 모르실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부터 당장 세상일을 뒤로 미뤄버리고,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김온유 집사

:: 신앙에세이 ::

술과 담배

새신자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며 한 번쯤 던져 보는 질문이 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술과 담배를 해도 되는지이다.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도,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씀도 없는데 왜 하면 안 되는지,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던데 왜 그런지. 다행히 난 삐뚤어지기 쉬운 사춘기 시절에 예배 때 들은 목사님 설교로 그러한 호기심을 빨리 잠재웠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있다고 한다. 술이 몸에 들어가면 그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선인지 악인지 분간이 어려워지고, 이에 죄악을 저지르기 쉬운 상태에 노출이 된다고 한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술이란 게 술자리의 분위기가 있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면 술자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담배는 우리 몸속에 화학작용을 통해 스트레스와 긴장을 순간 완화시켜 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자욱한 연기가 폐에 들어가니 나중엔 더 답답한 느낌이 들어 또 담배를 찾게 되고, 마찬가지로 한 개비가 두 개비 되고, 두 개비가 세 개비 되어 쉽게 중독이 된다.

크리스천이라 말하는 사람이 음주와 흡연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잘못된 본을 보인다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음주와 흡연으로 얼룩 입힌다면, 성령님도 불쾌해하지 않으실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6~17).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 웅달샘 ::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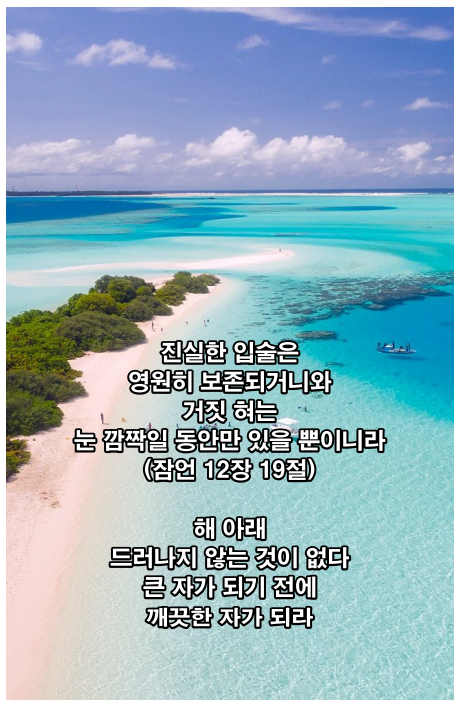
어느 임금이 왕비가 죽자, 새 왕비를 맞기 위한 간택례가 있었다. 임금은 친히 간택하는 자리에 나와 후보 처녀들을 둘러 보았다.

그런데 다른 처녀들은 모두 정해진 방석 위에 앉아 있으나, 단 한 처녀만은 방석을 앞으로 밀어 놓고 맨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임금이 이상히 여겨 그 까닭을 묻자 처녀가 대답했다. "아버님의 존함이 방석에 씌어 있는데 자식으로서 어찌 그 위에 앉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방석의 모서리마다에는 후보 처녀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임금은 처녀들에게 물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것이 무엇인가?" 후보 처녀들은 산이니 물이니 제각기 생각나는 대로 대답했다. 그런데 방석을 밀어놓았던 처녀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다고 했다. "왜 그런가?" "산이나 물은 암만 깊다고 해도 능히 재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도저히 잴 수 없으니 무엇보다도 깊지 않겠습니까."

임금은 내심 감탄해 마지 않으면서도 내색을 하지 않고 다음 질문을 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이냐?" 이번에도 처녀들은 봉선화나 모란, 해당화 등의 여러 가지 꽃 이름을 대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깊다고 했던 처녀는 자기 차례가 되자 목화꽃이라고 말했다. "다른 꽃은 다 잠시 아름다울 뿐이지만, 목화꽃은 옷이 되어 온 천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니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까요." 말하나마나 이 처녀가 왕비로 간택되었다.

그녀는 왕을 보좌하는 밑거름이 되어서 왕의 나무를 무럭무럭 자라게 함으로 천하의 그늘을 이루었다고 한다.

여인 중의 으뜸은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賢淑)하다'는 말은 어질고 정숙하다는 뜻으로, 그 안에는 지혜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현숙한 아내는 진주보다 귀하고 사모하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자의 남편은 그의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고, 그런 자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고, 게으르지 않아 집안을 잘 보살피고, 자식도 잘 건사한다. 그래서 남편은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고 칭찬하게 된다(잠31:10~31).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는가!